

포스트 코로나시대 에너지 발전 방향 제시



11월2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개최...지역 특산물 장터도 24개국 참여...해외 바이어와 랜선 수출상담 통역사 지원 중기 해외 수출촉진·지역 상생발전 위한 행사 위주로 진행

5년 동안 매년 광주에서 열렸던 한국전력 '빅스포(BIXPO)' 박람회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하늘같이 막혀 해외 우수 기업과 바이어(구매 담당자)가 직접 광주를 찾지는 못하지만 24개국 바이어 220개사가 화상회의를 통해 판로 확대에 나선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빅스포 2020(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을 오는 11월2일부터 11일까지 열을 동안 온라인 비대면 방식(bixpo.kr)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빅스포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화'(Energy Transition & Digital Transformation)를 내걸었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촉진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행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299개사)보다 70여 개 줄어든 220개사가 참가하지만 GE(제너럴일렉트릭사), 지멘스, 노키아, SK텔레콤, SM, 두산중공업, LS산전, 현대일렉트릭 등은 올해도 명단에 올랐다.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10개국 등 신남방지역과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6개 권역 24개국으로부터 100명 이상 구매 담당자(바이어)를 초청했다. 초청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했다. 한전은 국내 중소기업이 화상으로 연결된 해외 바이어와의 랜선 수출상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통역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베스트 스타트업(Best Start-up)

선발대회를 열어 선정된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창업자금 지원과 해외 유명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인재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획도 마련됐다. 한전은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빅스포 전용관'(myjob.jobkorea.co.kr)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올해는 광주 18개사·나주 에너지밸리 30개사 등 지난해보다 3곳 많은 48개사가 지역 인재를 찾는다. 또 광주·전남지역 특산물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특산물 장터도 온라인상으로 열린다. 빅스포 참가자들은 전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장터'와 광주 공동 브랜드 사

이트에서 내놓은 지역 특산물을 5% 추가할인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지역 농산물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한전은 지정한 전남 9개·광주 18개 품목은 기존 할인보다 20%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30일까지 사전 참가 등록하면 특산물 경품이 주어진다. 한전은 이 기간 동안 지자체 등과 협력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황광수 한전 중소벤처지원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빅스포가 올해에는 온라인 위주의 행사로 개최되지만, 비대면 전시 문화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전의 글로벌 네임 벨류와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해 수출계약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빅스포 2019'에는 299개 국내의 기업, 2만8000여 명 관람객이 찾았고 387억원 상당 수출계약 18건이 성사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열린 영산강문화장터 모습.

'품질 좋은 농산물 저렴하게'

영산강문화장터,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

내일부터 11월1일까지 세트 위주로 상품 구성

'코로나 시대, 드라이브 스루 장터서 만나요.' 워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이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영산강문화장터를 연다. 해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장터를 열어왔던 영산강문화관은 올해는 코로나 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농산물 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시 남구·나주시·수자원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올 장터에는 나주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와 동곡농협, 노안농협, 오색빛협동조합이 참여한다. 이번 장터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지역의 품질 좋은 농산물을 사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에 맞게 판매 품목도 세트 위주로 구성했다. 삼겹살구이세트, 수육세트, 국거리세트, 김치 세트, 어린이 간식세트 등 간단히 조리 가능한 농산물 꾸러미 세트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샤인머스켓 세트), 배, 벌꿀세트 등이 준비돼 있으며 애호박 등 개별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다. 영산강문화관(광주시 남구 승촌보길 90)이 자라한 승천보 인근은 자전거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전거 마켓도 열린다. 마켓에서는 화산전자, 인포바이크 등 지역 자전거 전문점이 참가해 자전거 관련 용품을 판매한다. 또 자전거 의류와 용품을 2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전거 기부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창호 영산강문화관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문의 061-335-086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마트 광주점, 신선·식품 매장 리뉴얼

주류·반려동물 매장 보강

이마트 광주점(서구 광천동)은 오는 11월26일까지 주류와 반려동물 관련 상품 매장을 보강해 전관 개선공사(리뉴얼)를 진행한다. 이마트 광주점은 지난해 8월 신선매장과 식품 매장에 대한 1차 리뉴얼을 마쳤다. 가장 중점적으로 변화하는 부문 중 하나는 주류 특별매장 '와인 앤 리큐르 샵'이다. 수요가 늘어난 와인 상품 가격표에는 원산지, 당도를 표기해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리빙(생활)매장에는 이마트 생활 전문관 '엠티(at HOME)', 반려동물용품 전

문관 '몰리스'가 신규 입점한다. 옛훙은 자주(JAJU), 데코라인, 까사미아, 로렌 데코, H매중, 시디즈 등 생활 브랜드가 집적화된 공간이다. 반려동물 전문관 '몰리스'는 사료(펫푸드)와 의류·이미용·위생용품 상품 수를 3배 확대했다. 김창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개편 14년 차를 맞은 광주점이 리뉴얼을 통해 2030 젊은세대와 가족단위 고객에 편안한 쇼핑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급화된 매장과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들이 계속 찾고 싶은 지역 내 최고 대형마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직장인 빚 평균 4245만원 29세 이하 1년 새 47% ↑

29세 이하 직장인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243만원으로 1년 새 46.8%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1억6000만원의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와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잠정치)은 4245만원, 중위 대출액은 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1%(281만원), 12.4%(440만원) 늘었다. 젊은 직장인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액은 1243만원으로 전년보다 46.8%(396만원) 올랐다. 30대는 5616만원으로 14.0%(691만원) 늘었다. 29세 이하와 30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대출은 모두 주택 외 담보대출(85.8%, 20.4%)이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1억6428만원으로, 1년 전보다 742만원(4.7%) 늘었다.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32%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높아졌다. 매출액이 많을수록 대출도 많았지만 연체율은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인 0.60%가 가장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약사회와 업무협약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서옥원·왼쪽 세번째)와 전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29일 전남지역 안정적 약국 경영을 위한 'NH메디칼론' 금융 지원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학연금, 지역 중소기업 지원 'TP동반성장몰' 운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TP동반성장몰'을 운영한다. 사학연금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고 29일 밝혔다.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이다. 가전·생활·스포츠·패션·뷰티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한다. 사학연금은 지난 20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동반

성장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학연금은 ▲사학연금 임직원의 자율적 이용과 주가지 흥보 ▲협력사 동반성장 포상포인트 지원 ▲각종 기념품·홍보물과 사무용품 구매 ▲이웃 적극 장려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